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방안*

홍성덕**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현황

II.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의 의미와 실태

III. 전적지 정비 및 활용방안

맺음말

〈국문초록〉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항전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적지는 1999년 지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하고,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1년 ‘대둔산항쟁전적비’와 안내판을 설치한 이후 구체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적지의 보존 정비는 먼저 전적지의 보존 관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탐방객에 의한 물리적 변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발굴 조사

* 본 논문은 2024년 10월 3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완주 향토문화예술회관)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전까지는 출입을 금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항전에 참여한 사람에 관한 개별 연구와 대둔산 지역의 동학 조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교 사찰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유산 사적으로 승격할 때까지 선행적으로 대둔산에 있는 전적지 안내판을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한다. 전망대와 같은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둔산은 자연환경 이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한국전쟁과 관련한 중요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들을 연계하는 교육답사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완주 대둔산, 전적지, 보존 및 활용, 사적(史蹟)

머리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기념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 의미를 계승하려는 ‘귀감’의 의미를 갖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한다. 역사적 사실의 유형에 따라 기억과 기념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습 대상으로서 역사적 사실은 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예컨대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에서 기억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의 결과를 포괄한다. 그 중에서도 기념은 특정한 인물이나 전쟁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기념은 추모, 애도, 전승을 포괄하며 널리 알려려는 선양사업의 일환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하면 기념 사업은 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③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④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 기념 사업은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기념관, 기념 공원, 기념비(조형물) 등이 세워졌고, 유적지의 문화유산 지정과 학술 연구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기념 사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史實)에 대한 규명과 활용, 기념 사업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이하 대둔산 전적지)도 그 하나이다. 특히 완주군의 경우 삼례집회와 2차 봉기의 주요 거점임에도 문화유산의 지정이나 기념, 활용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¹⁾

대둔산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군이 대둔산을 거점으로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 사망한 유적지이다. 1999년 ‘최후항전지’의 위치가 알려졌고,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된 뒤, 기념비와 안내판 등을 세우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유적지는 1999년 조사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대둔산 내 탐방로 개설 등 실질적인 활용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대둔산 전적지의 의미와 보존 실태를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완주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적 사실은 2차례의 삼례집회, 2차 봉기, 고산 지역 전투, 대둔산 최후항전지 등이다. 이에 대한 학술 연구 성과도 편차가 크며, 특히 역사적 현장에 대한 규명과 문화유산 지정은 최후항전지뿐이다. (신순철, 2024,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과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자료집)

I.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아카이브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 총 376개소를 소개하고 있다. 유적지는 인물유적(집터, 가옥, 활동, 피체지, 순절지, 묘지, 동상, 기타), 전투·집결 유적(모의지, 훈련지, 전투지, 점령지, 집결지, 주둔지, 이동로, 기타), 기념시설(기념비, 기념탑, 동상, 조형물), 기념공간(전시관, 추모관, 복합건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시스템 내 상세검색 분류 검색에 의하면 총 분류별로 362건이 검색되지만, 유적지 전체 수는 376개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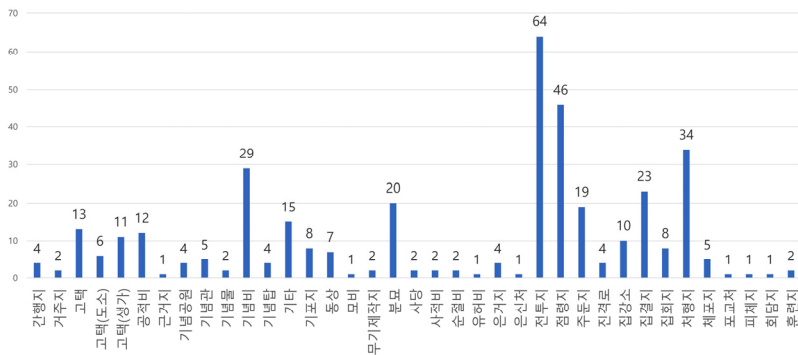
〈표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아카이브 분류) 현황

분류		수량	분류		수량	분류		수량
인물 유적	집터	20	전투 · 집결	모의지	19	기념 시설	기념비	37
	가옥	6		훈련지	4		기념탑	6
	활동	12		전투지	79		동상	7
	피체지	6		점령지	48		조형물	7
	순절지	8		집결지	8	기념 공간	전시관	1
	묘지	17		주둔지	5		추모관	2
	동상	0		이동로	11		복합건물	0
	기타	16		기타	43	합계		362

시스템 내 유형별 분류에 의한 상세검색 결과는 잘못 분류된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전투·집결지 중 훈련지는 4개 유적이 검색되는 데 남원 요천 동학농민군 남원대회지, 청주 솔피마을 동학2차 기포 모의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원대회지의 경우 집결지로, 솔피마을은 모의지로 분류되어야 옳다. 또한 집강소터의 경우 영암관아 동학농민 집강소터는 점령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아카이브>유적지 정보>유적지 검색.(<https://www.cdpr.go.kr/main/?menu=95>, 2025년 3월 1일 검색)

지로, 능주관아 동학농민 집강소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일관성이 없다.



〈그림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유형별 분포현황

376개소의 명칭을 중심으로 편의상 3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37개의 유형 중 20개 이상의 유적지는 전적지(전투지) 64개소, 점령지 46개소, 처형지 34개소, 기념비 29개소, 집결지 23개소, 분묘 20개소 등이다.³⁾

전적지 64개소 중 국가유산(사적)으로 지정된 유적 10개소이며, 시도지정 국가유산(기념물)은 5개소이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총 15개소의 유적 중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로서 지정된 곳은 장흥 석대들, 장성 황룡촌,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홍천 서석, 완주 대둔산 등 6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 때문이 아닌 그 자체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된 유적이다.

3) 37개 유형은 아카이브에 구축된 유적 명칭을 중심으로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표 2〉 국가유산 지정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지역	국가지정 국가유산(사적) 유적명
전남	나주읍성 서성문 전투지(나주읍성)
전남	여수 전라좌수영 동학농민군 전투지(여수 진남관)
전남	장흥 석대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장흥 석대들 전적)
전남	함평 동학농민군 석교 전투지(함평 고막천 석교)
전남	장성 동학농민군 황룡촌 전투지*(장성 황룡 전적)
전북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전투지*(정읍 황토현 전적)
충남	공주 우금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공주 우금치 전적)
충남	내포 해미읍성 동학농민군 전투지(서산 해미읍성)
충남	서천 한산 건지산성 동학농민군 전투지(서천 건지산성)
충남	홍주성 동학농민군 전투지(홍성 홍주읍성)
지역	시도지정 국가유산(기념물) 유적명
강원	홍천 서석 동학농민군 전투지*(홍천풍암리동학혁명군전적지)
경남	고성 옥천사 동학농민군 전투지(고성 옥천사 대웅전)
경남	하동 고성산성 동학농민군 전투지(하동 고성산성)
전북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군 전투지*(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전적지)
충남	논산 황화대 동학농민군 전투지(논산 황화대 봉수 유적)

* :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정 전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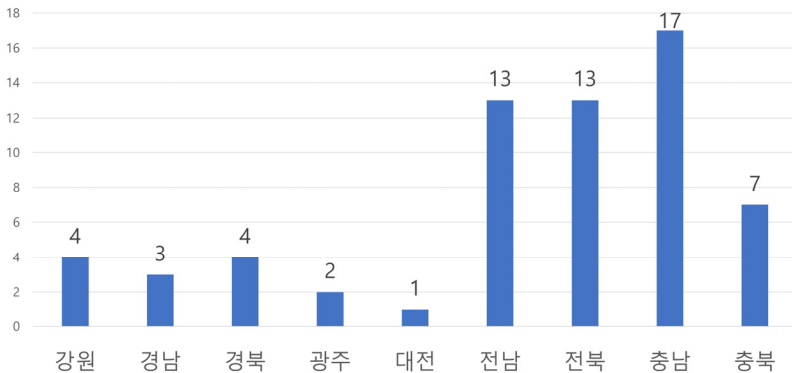
()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지정 명칭

전적지로 분류한 유적지는 유적 명칭에 전투지, 전적지 등이 혼재되어 있다. ‘전적지’는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의한 것인데 아카이브 시스템에서는 국가유산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투지와 전적지의 명칭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서 명칭 부여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유산의 유형 분류 중 전적지는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내에 궁궐·관아, 성, 전적지, 근대정치국방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4) 2025년 4월 현재 전적지로 지정된 국가유산은 총 15개소이다. 임진·정유왜란 전적지 7개소,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6개소이며, 기타로 삼국시대 병영유적과 거열산성 2개소가 있다. 지정 시기로는 1970년대 5개소, 80년대 2개소, 90년대 2개소,

유적의 경우 국가유산 명칭과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 유적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의 정식 명칭은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이다. 이중 국가지정은 ‘전적(戰蹟)’으로 시도지정은 ‘전적지(戰蹟地)’로 명명하였다.⁵⁾ 또 국가지정의 경우 ‘시군명+지명’만을 부여한 반면 시도지정은 ‘동학농민혁명’ ‘동학혁명군’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의 전투지 명칭 중 국가유산 지정 명칭은 해당 지역 또는 공간,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라좌수영의 경우 국가유산 지정 명칭은 여수 진남관이어서 전투지로서의 지명은 아니다.



〈그림 2〉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지역별 분포

한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대전으로 18개소(대전 1)이며, 전남 14개소(광주 1), 전북

2000년대 6개소 등이다.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13개소이며, 이외 충북 7개소, 강원과 경북이 각각 4개소이다. 전투지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 민보군, 일본군의 전투가 주로 있었던 곳은 전북, 전남, 충남으로 파악되며, 특히 충남은 2차 봉기 이후 집중적으로 전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 내 유적지 중 전적지 명칭은 지역(시군명+지명)을 먼저 쓰고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용어로 ‘동학농민군, 동학농민혁명 + 전투지(전적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유적의 경우 지명과 동학농민군(혁명)을 바꾸어 사용(함평 동학농민군 석교 전투지)하거나, 전투지+지명(안동 동학농민군 전투지 청산평원)으로 명칭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국가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⁶⁾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유산(문화유산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유산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유산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 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6)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 명칭 부여 지침」 제3조(공통적인 부여 원칙) 총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물 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부여 기준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유산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유산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 원칙에 따른다.

국가유산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보존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 지정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적지 명칭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카이브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중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이유가 동학농민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지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376개소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곳을 표기할 경우, 국가유산 지정 이유가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사례들이 많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II.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의 의미와 실태

1. ‘최후항전지’의 역사적 의미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항전지’로 알려져 있다. ‘대둔산 최후항전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와 ‘항전’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덧붙여진 것이다.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가 ‘최후항전지’였다는 첫 주장은 신용하⁷⁾였으나, 1999년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원광대학교 사학과가 대둔산 전적지를 조사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최후항전지 조사단」을 조직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최후항전지’의 역사적 의미는 일반화하였다.⁸⁾ 그렇지만

7) 신용하, 1993,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농민전쟁」,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356~358쪽.

1895년 2월과 4월에 호남 지역과 황해도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잔여 세력에 의한 산발적 전투가 있었다⁹⁾는 연구로 대둔산 전투가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전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후항전지’는 여전히 대둔산 전적지의 대표 이미지이다.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전적지가 ‘최후항전’의 의미를 갖는 이유를 기존 연구¹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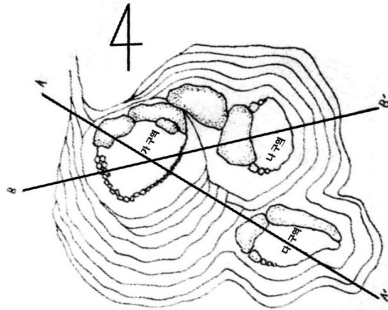
첫째, 항전의 거점을 구축하고 싸웠다는 점이다. 1895년 4월까지 산발적인 전투가 있었음에도 대둔산 전적지는 ‘최후항전지’로 인식하는 것은 진지를 구축하고 70여 일에 걸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는 게릴라식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전투와 다르다 할 수 있다.

대둔산 항전군은 1894년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18일까지 70여 일 동안 항전하면서 대둔산 미륵바위 위에 초막 3동을 짓고 근거지로 만들었다. 지표조사 결과 근거지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 구역의 경우 150㎡, ‘나’ 구역 70㎡, ‘다’ 구역 120㎡의 규모이다. 50여 명이 장기간 생활하기 위한 난방시설과 주변 350m 이내에 우물이 2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만 명을 막을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다는 평가는 근거지가 120~150m 높이의 암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이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8) 「동학군 최후항전지 대둔산 ‘석두굴’서 발견」, 『한국일보』 1999년 2월 12일 (<https://www.hankookilbo.com>, 2025년 3월 30일 검색) 당시 조사단이 작성한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1999.8)에는 ‘최후항전지’로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9) 姜孝淑, 2002,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 762, 東京, 30쪽.

10) 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 이병규, 2002,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 신순철, 2024,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동학농민혁명연구』 2.



〈그림 3〉 대둔산 전적지 배치도

둘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적지는 전투의 특성상 특정 범위를 확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적지 발굴은 범위를 정하기 힘들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중에 발굴 조사 등을 통해서 전적지의 성격이 밝혀진 곳은 없다. 기록이나 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 문화유산의 범위를 정해 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대둔산 전적지의 경우 지표조사 결과 주둔했던 분명한 유물이 수습되어 향후 발굴을 통해 유구 확인까지도 가능하다.

1999년 지표에서 수습한 유물은 옹기, 자기, 기와, 방울, 돌저귀 등의 생활 도구와 아궁이터, 우물 등이 확인되었고, 이외 탄피 2점, 탄두 2점, 산탄 3점, 납탄 덩어리 8점 등 총 15점의 탄약 파편류가 수습되었다. 수습 유물은 19세기 후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탄피b는 근대식 화기 개발 이전 사용된 영국제 스타이더 소총이나 미국제 레밍턴 소총에서 사용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이 사용한 무기와 동일하다. 당시 일본군의 주력화기가 무라타총이었기 때문에 이 탄피 유물은 관군이나 동학농민혁명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¹¹⁾

11) 지표조사 당시 수습 탄약 파편류에 대한 분석은 총기 탄약 전문연구자인 전쟁기념관 박재광 학예연구관의 감정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기증된 수습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4〉 대둔산 전적지 ‘가’구역

셋째, 대둔산 향전에는 관군(감영군, 장위영군), 민보군, 일본군이 모두 참전해 싸운 치열한 전투였다는 점이다. 관군은 문석봉이 이끈 충청(공주)감영군과 이두황이 지휘한 장위영군, 장세복의 강화영병이 참전하였다. 일본군은 중로분견대 지대군이 농민군 진압에 가담하였다.

1895년 2월 04일 감영군 40여 명 포 공격

금산 의병장 김진용 300명 민보군 합류

2월 13일 문석봉 신영 병정 40명 공격

2월 15일경 공주 군사 17일까지 공격

2월 17일 일본군 대둔산 도착 포 공격

이두황 장위영군 30명 일본군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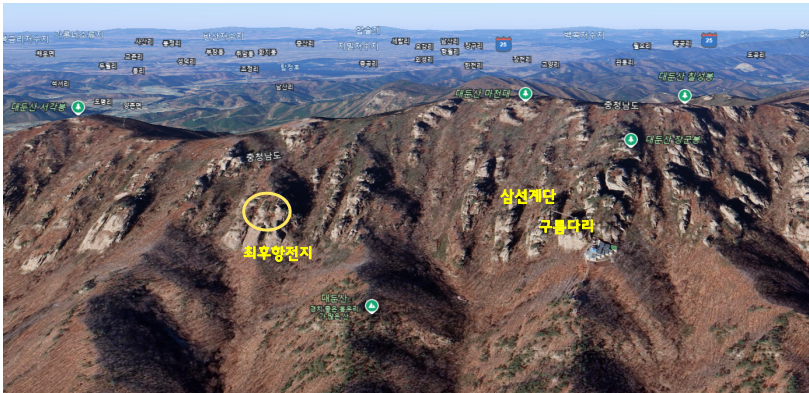
2월 18일 감영군, 민보군, 장위영군, 강화영병, 일본군 연합
공격

2월 19일 대둔산 진지 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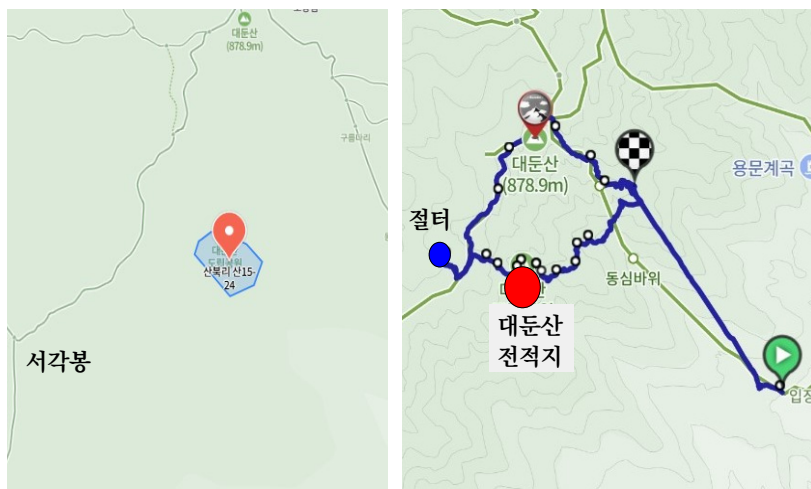
대둔산 동학농민혁명군 주둔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포격에 함락되지 않아 정면 공격을 시도하는 한편, 일본군 1개 분대가 북쪽 후면을 기습 공격하였다. 관군·민보군·일본군의 연합 공격으로 결국 진지를 지키던 25~6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12살 난 어린 소년 1명만 생존하였다. 소년의 증언에 의하면 30여 명가량 있었으며, 그중 10여 명이 도망하였고 주동자 4명은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70여 일간의 항전은 교전 16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

2. ‘최후항전지’의 보존실태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지정 면적은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15-24번지로 총 13,207㎡이며 완주군에서 관리한다. 대둔산 전적지는 대둔산 정상인 마천대에서 서쪽 능선을 넘어 서각봉 중간 지점에서 4시 방향 아래에 있으며, 마천대 정상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150m 정도의 암반 위에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



〈그림 5〉 대둔산 전적지 위치 원경



〈그림 6〉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위치

대둔산 전적지의 접근은 대둔산 입구에서 케이블카로 이동 후 하산 하면서 동심바위, 동심정 휴게소에서 능선을 넘어 석두골을 따라 올라 가거나, 마천대에서 서각봉쪽으로 가다 형제봉으로 내려가는 코스와 처음부터 석두골 계곡을 따라 오르는 세 가지 코스가 있다. 대둔산 주차장에서 동심바위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폐쇄된 동심정 휴게소에서 능선 길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대둔산 전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음에도 접근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개발되지 않아서 전문가의 안내 없이는 답사가 어렵다.¹²⁾ 따라서 일부 숙달된 등산객만 갈 수 있으며, 대둔산을 찾는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1999년 지표조사 이후 유적은 큰 훼손 없이 보존되고 있다. 다만 지표에 있는 기와편 중 지표조사 당시 수습하지 않았던 기와편이 ‘가’구역 나무 밑에 모여져 있기도 하며, 지표조사 당

12) 현재 대둔산 전적지 동쪽으로는 양파능선, 일봉길, 솔봉이길 등 세 루트의 암벽 등산코스가 개발되어 암벽 등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솔봉이길은 대둔산 전적지와 연결된다. (<https://okkj777.tistory.com/533>)

시 사진과 비교해 보면 초석으로 보이는 일부 돌덩어리가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그림 7〉 2015년(좌, 국가유산청) 2024년(우, 필자) 초석의 위치 변화

대둔산 전적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설치한 10여 미터의 줄 사다리를 이용해야 한다. 입구 초입 등산안내도와 향전비 안내판을 제외하면 전적지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전적지 역시 아무런 설명 안내문이 없으며 줄 사다리만 놓여 있어 만일 일반인이 오른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적지 ‘가’구역은 서남쪽으로는 낮게 돌담이 쌓여 있다. 이 돌은 관군이나 일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엄폐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접근 시 돌을 던져 공격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돌담의 경우 남쪽은 허물어진 곳이 많다. ‘가’구역에서 ‘나’ ‘다’구역으로 접근하기는 퇴적된 나뭇잎 등으로 쉽지 않으며, 그 아래가 바위 낭떠러지여서 위험하다.

13)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에는 ‘가’ 구역의 초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돌무더기에 대한 도면이 없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당시의 사진과 비교해 볼 때 돌무더기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내 대둔산 전적지 방문 기록 등을 보면 지표면의 돌과 기와편을 물리적으로 옮겨 놓은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okkj777/223335209490>)

Ⅲ. 전적지 정비 및 활용 방안

1. 문화유산 정비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만 한다.¹⁴⁾ 문화유산 시책은 5년마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며, 기본계획에는 기본 방향 및 목표, 보수, 정비, 관리, 기록 정보화, 재원 마련, 활용 연구개발 등을 포괄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해야 하는 유적지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법률적 근거는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정비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사적을 대상으로 제정된 지침이지만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정비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정비 지침은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¹⁵⁾을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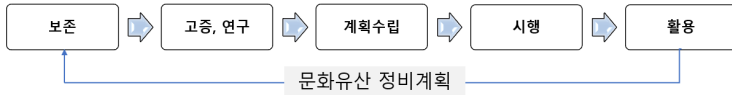
- ①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② 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이 가진 특성과 관계 법령, 주변 상황(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재정 여건 등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문화유산의 복원·보수는 반드시 학술적 근거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자는 고증,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5)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이 규제 대상이 아닌 향유 대상으로 인식되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은 첫째 보존 중심, 둘째 실현 가능성, 셋째 종합적 판단, 넷째 철저한 고증, 다섯째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 여섯째 향유 대상으로 인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보존을 중심으로 하되 규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고증과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만 한다.

〈표 3〉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핵심과제

핵심과제	수행과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계승	•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재 보존·전승 • 문화재 핵심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는 보존·전승 •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가꾸는 문화재 보존·전승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권 증진 • 문화유산 자원화를 통한 가치 창출 • 친근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공감 확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 국제사회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문화 외교력 강화 • 역사 정의 실현을 통한 민족 문화재 자긍심 회복
미래를 여는 문화재 스마트 행정	• 시대적 요구 부응 문화유산 관리의 디지털 대전환 • 과학적 조사·연구·개발로 문화유산 미래가치 발굴 •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현장성 강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상생’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와 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대둔산 전적지 정비 방향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1999년 지표조사 이후 정비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보존 대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사적지 지정, 둘째 사적지 지정 후 유적지와 유적지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 셋째 대둔산 인근지역의 종합적인 학술 조사, 넷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등이다.¹⁶⁾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존 대책은 문화유산 정비계획 중 보존과 고증·연구 단계, 그리고 활용 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 사적지 지정 이후 발굴 조사를 제시하였는데, 사적 지정에서 발굴 조사가 필요조건은 아닌 사례가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네 가지의 보존 대책 중 국가유산 지정은 시도 국가유산인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첫 단계를 밟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발굴 조사와 학술 조사, 역사교육 활용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전히 이러한 보존 대책은 유효한 주장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존 정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보존 정비 대책

대둔산 전적지는 기념물로 지정했을 뿐, 보존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증이 끝날 때까지 선제적인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탐방객의 방문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지표 유물의 분실 위험이나 초석의 이동, 돌담

16) 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31쪽.

의 붕괴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사전 보존 정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8〉 전적지 입구

첫째, 발굴 조사 전까지 전적지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둔산 전적지는 관심 있는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탐방이 소수지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매년 2~5차례의 탐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탐방기 등을 보면 지표 내 유물과 초석에 물리적 힘을 가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주변에 있는 기와편 등을 모으거나, 추념하는 과정에서 바닥의 돌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역의 바위틈에는 무속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 무속 행위 인지 탐방객의 추념 행위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가’구역이 지표조사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둘째, 전적지 입구를 통제하는 대신 안내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이

해를 돕도록 한다. 전적지를 탐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분히 홍보되어야 한다. 대둔산 공원안내소, 대둔산 공영주차장, 케이블카 탑승장, 향전비 건립 장소 등과 관련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특히 전문가의 안내 없이는 탐방이 어렵기 때문에 안내가 가능한 등반 전문가와 역사 전문가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

탐방 불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경위 과정과 전적지 사진이나 도면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전적지 진입로 아래에 설치한다. 안내문은 홍보와 양해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설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입로를 폐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통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전적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전적지 ‘가’구역 초입에 지표에 있는 기와, 돌 등을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내문을 함께 설치하거나 유물을 수습한다. 발굴 조사 완료 후 유적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탐방객에 의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고증·연구

대둔산 전적지에 관한 고증·연구는 발굴과 문헌 및 구술 조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첫째, 지표조사 이후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표의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적 조사하기 위한 도면화 작업이나 세부 촬영이 필요하다. 발굴 조사에 앞서 전적지에 대한 지표 도면 및 세부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지표상의 유물은 수습 보관한다. 1999년 지표조사 당시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도면 또는 사진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표조사 당시 상세한 실측 도면 등을 그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은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지표조사 보고서 내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다.

둘째, 무엇보다 발굴 조사가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발굴 조사 이전에 시굴 조사를 통해 유구를 확인하고 발굴 여부를 결정하지만, 전적지는 지표조사 결과 분명한 역사적 공간임이 확인되었고, 험준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발굴 조사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형적 조건으로 발굴 시 수습된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왕복하면서 발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구역에는 나뭇잎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서 발굴 조사를 할 경우 당시 유물과 건축 유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발굴 조사 영역을 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표조사를 진행했던 연구팀과 발굴을 담당할 연구팀의 협업을 통해 구역을 설정하고, 예상 사업비를 산출한 다음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 9〉 대둔산 전적지 ‘가’구역

셋째, 지표조사 당시 대둔산 동학농민혁명군의 항전을 기록한 문헌자료를 정리했으며, 이규만·우백용·박진옥 등의 구술 증언을 확보했었다. 대둔산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이병규, 신순철¹⁷⁾의 연구가 있으나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먼저 대둔

산 전적지와 관련해서는 항전 중에 사망한 인물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대둔산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항전했던 동학농민혁명군과 연산, 진산, 고산 등의 동학 조직과의 관계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항전과 관련한 연구이다. 70여 일 동안 항전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당연히 지원 조직에 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둔산 인근지역의 동학 조직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표에 있는 기와의 의미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군이 근거지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곳이 일정한 시설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표에 노출된 기와는 동학농민혁명 시기나 그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초가 3채가 있었다고 하므로 기와는 그 이전에 이미 훼손된 건물의 기와로 추정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 그래서 항전을 위한 장소로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적지의 위치가 가지는 역사성의 연구에서 주목할 지점은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훼손된 절터이다. 전적지에서 마천대와 서각봉 사이의 능선길로 올라 비선포곡 방향으로 1백여 미터를 내려가면 훼손된 절터를 만날 수 있다. 전적지에서 절터까지는 15분 정도의 거리이다. 절터는 서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우물과 입지 조성을 위한 축대가 아직도 남아 있다. 현재 이 절터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도 표시되지 않은 절터이다. 절터의 규모로 보면 부속 암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⁸⁾

17) 이병규, 2002,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신순철, 2024,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동학농민혁명 연구』 2.; 신순철, 2024,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과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자료집)

1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 8)에서는 절터가 18~19세기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자편 등이 있는



〈그림 10〉 전적지 인근 폐사지 전경(상), 축대(중), 우물(하)

절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면 이 사찰이 훼손된 시기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 사찰의 우물이 전적지 인근에서 식수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훼손된 이 절터에서 식수원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지원 시설이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대둔산 안심사이다. 안심사는 638년 자장율사가 창건하였고, 875년 도선국

것으로 보아 창건 연대는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사가 중창, 1710년에 신열이 증건한 사찰이다. 1759년에 세워진 사적비에 의하면 안심사에는 30여 개의 당우와 석대암 등 13개의 암자¹⁹⁾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개의 암자 중 2개만 남아 있다고 했으니 훼손된 암자 중의 하나일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²⁰⁾ 안심사는 대둔산 전적지에서 직선거리로 2km이다. 그밖에 전적지 동북쪽에 태고사가 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암자 등 확인할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²¹⁾ 안심사와 태고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존속해 있었을 것이므로, 동학농민혁명군의 항전에 관계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²⁾

3)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비계획은 법률적으로 ‘사적’에만 국한되어 있으나²³⁾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내에 일반적인 계획은 포함된다. 현재 기본계획 내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에 관한 구체적인 보존 관리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둔산 전적지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사적

19) 「안심사사적비」에 있는 안심사 소속 암자는 석대암(石臺庵) 백운암(白雲庵) 지장암(地藏庵) 득모암(得母庵) 득수암(得水庵) 약사암(藥師庵) 화장암(華藏庵) 백련암(白蓮庵) 상원암(上院庵) 원통암(圓通庵) 보현암(普賢庵) 낙수암(落水庵) 견성암(見聖庵) 등이며, 모두 없어지고 낙수암과 견성암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금강대(金剛臺) 만경대(萬景臺) 천진대(天真臺) 등의 명승 ‘臺’도 기록되어 있다.

20) 안심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서 소장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금석문이나 문집 기록을 조사 연구해야만 한다.

21) 이 외에도 대둔산에 있는 태고사는 전적지에서 직선거리로 1.5km 지점에 있으며 금산군에 속한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태고사는 조선시대 증묵대사가 중창했고, 송시열이 공부를 위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나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으며, 사적비 등의 금석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22) 동학농민혁명과 불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학사상과 불교’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사찰과 승려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는 볼 수 없다.

23) 국가유산청, 2024,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승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적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적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적 지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대둔산 전적지 활용 방안

문화유산의 활용은 원형활용(현재화)·변형활용(현대화)과 직접(1차적)활용·간접(2차적)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별로는 문화유산 향유, 교육적·학술적·지역적·경제적·세계적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²⁴⁾ 이 외에도 진정성 강화, 상품화 확대, 산업화 확대, 콘텐츠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²⁵⁾ 이러한 활용 유형과 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는 문화유산 자체의 활용보다는 유산을 소재로 한 폭 넓은 의미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활용의 필요성을 더 두고 있다.

대둔산 전적지에 관한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적지를 포함한 대둔산 일원의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항전지의 발굴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지지 활용의 세부적인 방안은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탐방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지 자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발굴 조사 전까지는 전적지를 개방할 수 없으므로 짧은 기간 내 시행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 11~14쪽.

25) 홍성덕, 2015, 「전주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도시재생」, 『열상고전연구』 48, 55쪽.

1) 대둔산 일원 전적지 안내 정비

대둔산 내 전적지 관련 기념물과 안내문은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와 안내문, 대둔산 입구 대둔산 도립공원 안내도, 약수정 부근 안내문 등 세 곳에 마련되어 있다. 이중 항쟁전적비 앞에 세워진 문화유산 안내판의 설명과 약수정 부근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일대 사건이자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최초, 최대의 민중항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항쟁이기에 그 흔적이 대둔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대둔산은 지형학적으로도 중요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894년 2차 봉기 이후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이 삼례를 출발하여 여산, 논산을 거쳐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에 맞서 항전하였다. 1994년 12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까지 70여일 간 항전하던 농민군은 1895년 2월 18일(음 1.24)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함락되었다.

대둔산 항전지는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대부분 사라진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저항한 역사적 현장으로 동학혁명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당시 원형이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② 19세기말 조선은 조정의 실정으로 인하여 민심이 혼란하고 국력이 쇠진하였다. 그 틈을 타 일본국이 대륙침공의 야심을 갖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때 조선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부패한 조정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1894.10.10. 전봉준(全琫準)을 필두로 전라도 삼례에서 수십만의 동학농민혁명군이 기포하여 서울로 북진하는 도중 동년 12월초에 공주전투에서 무기의 열세로 인하여 퇴각할 때 최공우를 중심으로 한 高山(고산), 銅山(동산), 華山(화산) 군현의 동학농민군 천여 명이 이곳 大菴山(대둔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3개월간 항쟁하였다.

1895.2.18. 거점지인 대둔산 석두골(798m)에서 농민군 지도자급 25명이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때 동학접주(金石醇: 김석순)는 한 살쯤 되는 여아를 품에 안고 150m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하였다 하니 얼마나 처참한 역사의 현장인가! 이곳에서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고 우리나라 근대사에 빛나는 동학농민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새로운 민족사의 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①은 항쟁전적비 앞에 있는 기념물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안내문이고, ②는 약수정 부근의 안내문이다. ①에 비해 ②의 내용은 스토리 중심의 안내문이다. 다만 ②의 경우 ‘대둔산항쟁전적비 안내문’이라 하고 설명문에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되어 있어 맞지 않다. 전자는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기준에 따라 세운 것이고, 후자는 이야기 중심으로 세운 것이다. ①의 안내판 옆에는 항쟁지의 위치 도면을 표시한 안내판이 함께 있다. 문제는 항쟁전적비에서 전적지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항쟁전적비의 위치 역시 주 등산 진입로에서 벗어나 있어서 탐방객이 방문 목적으로 찾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가기는 어렵다.



〈그림 11〉 약수정 부근 대둔산 항쟁전적비 안내문

문제는 ②의 안내판이 설치된 위치이다. ②의 위치는 케이블카에서 내려 금강구름다리-삼선계단이 아닌 계곡 등산로에 있어서 서쪽으로

삼선계단이 보이는 위치이다. 이 지점에서는 대둔산 전적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무의미하다. 따라서 ② 안내판은 제목도 맞지 않고 위치도 관계가 없으므로 철거하는 것이 맞다.

대둔산 전적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마천대와 서각봉 방면 통신탑이 있는 인근에 안내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둔산을 찾는 사람이 마천대에 오르기 때문에 마천대에서 전적지 방향으로 위치 정보를 표시한 사진과 전적지 설명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장소를 고려할 때 간단한 설명문과 QR코드를 넣어 상세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곳은 금강구름다리 위 조망대이다. 현재 조망대에는 산 모양의 철제 윤각만을 설치해 놓았는데, 서남쪽으로 형제봉과 전적지 조망이 가능하다. 이곳에는 위치 표시를 한 파노라마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다. 파노라마 안내문은 전적지뿐만 아니라 대둔산 기암괴석 봉우리의 이름도 함께 표시한다. 대둔산은 기암괴석의 봉우리로 ‘호남의 금강’ ‘작은 설악산’으로 불리는데 그 절경을 설명해 주는 장소는 없다.



〈그림 12〉 파노라마 안내문 사례(한려해상공원)

대둔산의 절경 소개는 대둔산 케이블카 내에도 부착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탐방객은 케이블카 창 너머로 대둔산의 기암괴석을 감상한다. 이들 기암괴석의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대둔산 기암괴석의 라

인을 유리에 그려 넣고 이름을 붙여 놓는다면 대둔산을 이해하는 데 편리할 수 있다.

안내 문안의 작성 방향도 이야기 중심의 서술을 통해 탐방객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시 대둔산 최후항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최후항전의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전투가 있었다는 틀에 박힌 안내 문안보다는 전투의 의미를 설명하고 항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 기억을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망대 설치

2023년 10월 완주군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의원 등이 대둔산 정상 부근에 항전지 전망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²⁶⁾ 전망대의 설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의 하나이다. 전망대는 대둔산 전적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탐방객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적절한 위치는 마천대에서 서각봉 쪽 통신탑 인근이다.

다만 이 등산길은 폭이 좁아 설치 후 등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팔각정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전망대는 지양해야 한다. 폭이 좁고 암반이 많아서 정자 형태의 전망대는 대둔산의 자연환경과 부조화할 수 있으므로 세련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3) 전시관 및 휴게실 운영

대둔산 마천대 등산 1코스(주차장-느새골-동심바위-구름다리-마천대)에 폐쇄된 동심정 휴게소를 활용하여, 대둔산의 역사와 자연환경, 동

26) 「완주 대둔산 정상 부근에 동학농민군 항전지 전망대 조성 추진」, 『프레시안』, 2023년 10월 26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261335386898>, 2025년 3월 20일 검색)

학농민혁명 항전에 대한 전시 공간 겸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2층 팔각 건물의 동심정 휴게소는 대둔산 전적지 발굴 조사 후 전적지를 거쳐 마천대나 서각봉, 비선폭포 방향으로 이어지는 등산 탐방로의 출발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적지를 경유하는 대둔산 등산 코스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전적지 정비를 끝낸 뒤 전적지를 경유하는 등산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시관은 전적지를 활용한 답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용한 사전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시관의 구성은 대둔산 전적지만이 아니라 대둔산의 자연환경, 역사(동학농민혁명과 빨치산, 불교문화)가 함께 있어야 한다.

4) 대둔산 역사 탐방프로그램

역사적으로 대둔산은 답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대둔산은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빨치산이라는 중요한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이치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치는 대둔산 동쪽 완주군과 금산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이치전투는 웅치전투와 함께 전라도 방어의 중요한 전투 중의 하나이다.²⁷⁾ 이치 정상에는 이치전적비, 황진장군이치대첩비, 이치대첩유허비, 임란순국무명사백의병비 등이 세워져 있으며, 금산 방면으로 충남도 기념물인 금산이치대첩지가 있어 역사적인 교육장소로 이용 중이다.

한편, 대둔산 일원은 빨치산을 토벌하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1950년 10월 초 조선노동당 충남도당 세력(북한군 제6사단 패잔병 포함)이 대둔산으로 들어가 논산군 양촌면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27) 하태규, 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147~180쪽.

1천여 명의 병력으로 활동하였다. 1955년 1월까지 이들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가 3백여 차례 있었고, 빨치산 2,287명 사살, 1,025명을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련의 전투에서 의용경찰과 애국단원 1,376명이 전사하였다.²⁸⁾ 논산의 대둔산 입구에 대둔산 승전탑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대둔산의 역사성은 ‘호국’의 키워드로 연결된다. 따라서 호국을 주제로 한 답사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완주군 자체로는 웅치, 이치 등 임진왜란 전투를 중심으로 하는 코스와 삼례봉기, 고산전투, 대둔산 항전을 잇는 동학농민혁명 답사도 가능하다.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답사를 위해서는 답사지에 대한 기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삼례의 경우 삼례집회지와 다른 위치에 봉기탑 등이 건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고산전투의 경우 위치를 설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완주, 금산, 논산을 잇는 코스는 임진왜란과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 현장 교육이 가능하다. 대둔산 일원은 한국 역사상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명승 경관에 담겨 있는 역사적 기억은 전투에서 이겼는지, 졌는지의 승패 문제가 아닌 평화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둔산 일원의 답사 교육은 전쟁에서 평화로 이어질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5) 콘텐츠 활용

대둔산 최후항전은 많은 이야기의 극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전투이다. 엄동설한에 70일 동안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항전’하였다는 사실, 한 살쥔 되는 아이를 안고 뛰어 자결하였다는 동학접주 김석순의

28) 송현강, 2012, 「6·25전쟁기 강경경찰서 및 대둔산지구 전투 연구」, 『군사연구』 134, 육군군사연구소 ; 이윤정, 2020, 「한국전쟁 초기 전북지역 빨치산의 형성과 경찰 작전」, 『한국연구』 4, (재)한국연구원.

이야기나 단 1명만 살아남아 항전했던 사람들²⁹⁾을 기억할 수 있었던 사실과 일본군의 공격에 빈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려 살아남은 최공우가 술과 재물을 미끼로 관군을 물리쳤다는 것, 김공진을 통한 이간계로 농민군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 70일의 항전이었지만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은 극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최후 항전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로는 이성수의 장편소설 『칠십일의 비밀』(2018, 고요아침) 뿐이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대둔산 최후항전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최후 항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항전에 참여한 사람의 ‘인간애’와 항전을 지향했던 ‘새로운 세상의 빛’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사랑, 농민군의 이야기를 대둔산이 가지고 있는 시공의 시간(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속에서 엮어내는 작가적 상상력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로 알려져 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376개소로 조사되었고, 그중 전적지 64개소이다. 국가유산(사적)이 10개소와 시도지정 국가유산(기념물)은 5개소 등 15개소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장흥 석대들, 장성 황룡촌,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홍천 서석, 완주 대둔산 등

29) 대둔산 최후 항전에 참여했던 인물은 “都禁察 崔鶴淵, 都執綱 張志弘, 都執綱 崔高錦, 都執行 李光儀, 都執行 李光宇, 大正 李是脫, 接司 趙漢鳳, 接主 金在醇, 接主 陳秀煥, 絞授 姜泰鍾 奉道 奎判童” 등이다. (『대둔산부근 전투상보(大菴山附近 戰鬪詳報)』 特務曹長 武內眞太郎, 1895.2.18.) 이들은 진산, 고산 일대의 동학군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가 필요하다.

6개소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의 지정 이유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없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포함하여 유적지 명칭이 편의적으로 명명되었고 분류체계 역시 적합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최후항전지’로서 첫째 근거지를 구축하고 싸웠다는 점, 둘째 전적지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 셋째 관군(중앙, 지방), 민보군, 일본군 등이 모두 공격에 참전한 전투였다는 등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전적지는 1999년 지표조사 실시 이후 보존 정비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탐방객들에 의해 지표 유물과 초석 등이 이동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적지의 보존 정비를 위해서 먼저 발굴 조사 전까지 전적지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통제에 따른 안내문과 홍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적지 현장에는 더 이상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야만 한다. 아울러 발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후항전과 전적지 일원에 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최후항전을 벌인 동학농민혁명군에 관한 개별 연구와 연산, 진산, 고산 일대의 동학 조직에 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 특히 항전에 필요한 지원 조직으로 안심사·태고사 등의 사찰과의 관련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와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 사적 지정을 추진한다.

발굴 조사 이전까지 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대둔산에 설치된 안내판을 정비한다. 특히 약수정 부근의 안내판은 전적지 현장과 무관한 곳으로 철거해야 하며, 추가로 전적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는 전적지를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설치한다. 전망대는 대둔산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우면서 모던한 형태를 고려한다. 그리고 폐쇄된 동심정 휴게소는 대둔산이 역사와 자연환경을 설명하는 전시관 겸 휴게소로 구성하여 향후 전적지 탐방로 개설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둔산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한국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토대로 다양한 답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투고일 : 2025. 4. 9.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10.

참고문헌

〈단행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국가유산청.
「안심사사적비」.
원광대학교사학과 · 완주군, 1999.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문화재청, 202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
2024,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자료집』.

〈논문〉

- 姜孝淑, 2002,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 762, 東京.
류오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 국립문화재연구소, 4~17쪽.
송현강, 2012, 「6·25전쟁기 강경경찰서 및 대둔산지구 전투 연구」, 『군사연구』 134, 육군군사연구소, 219~255쪽.
신순철, 2024,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동학농민혁명 연구』 2, 291~319쪽.
이병규, 2002,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정, 2020, 「한국전쟁 초기 전북지역 빨치산의 형성과 경찰 작전」, 『한국연구』 4, (재)한국연구원, 171~203쪽.
하태규, 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147~180쪽.
홍성덕, 2015, 「전주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도시재생」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9~61쪽.

〈기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www.heritage.go.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
「완주 대둔산 정상 부근에 동학농민군 항전지 전망대 조성 추진」, 『프레시안』, 2023.10.26.

〈Abstract〉

A Strategic Approach to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ite in Mt. Daedun, Wanju

Hong, Seongduk*

The battle sit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Daedunsan, Wanju,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as the location of the final resistance of the movement. The specific site was identified through a surface survey conducted in 1999 and was designated as a cultural monument of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15. However, since the erection of the Daedunsan Battle Monument and installation of an informational sign in 2001, no concrete measures for preservation or utilization have been implemented.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ite should begin with restricting access to protect the area. Physical changes caused by visitors have been observed, so access should be prohibited until an excavation survey is completed, with proper signage to inform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excavation as soon as possible, along with individual studies on participants of the battle and research on Donghak organizations in the Daedunsan area. Additionally,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possible connections with Buddhist temples in the region. Based on these research outcomes, efforts should be made to pursue its designation as a national historic site.

* Professor, Dept. History&Contents of Jeonju University.

Until the site is elevated to the status of a National Heritage Historic Site, existing signs on Daedunsan should be reviewed, removed, and replaced with new ones. Active utilization strategies, such as establishing an observatory, should also be considered. Beyond its natural environment, Daedunsan is historically significant as the location of major battles during the Imjin Wa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Korean War. Therefore, educational tour programs that connect these events can als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aedunsan in Wanjū, Battle sit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Historic site

